

Kant에 있어서 합목적성의 可能根據

이 만 성*

목 차

- I. 머리말
- II. 제3비판서의 성격
- III. 반성적 판단력의 내용
- IV. 여러 종류의 합목적성
- V. 유기체에 있어서의 합목적성
- VI. 자연에 있어서의 합목적성
- VII. 도덕적 목적론에 있어서의 합목적성
- VIII. 맺는말

I. 머 리 말

본 논문은 칸트의 비판철학 체계안에 깔려있는 몇가지 기본적인 가설을 수용함과 동시에 형이상학으로서의 칸트철학을 논의의 배경으로 하여 출발코자 한다.¹⁾

*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조교수

- 1) 본 논문에서 수용한 기본적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법, 유추법, 이성의 삼분법 등을 말하고, 그리고 본 논문이 형이상학으로서의 칸트철학을 배경으로 삼는다는 것은 비판철학에 대한 인식론적 의의를 도외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논문의 주제가 지닌 성격상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과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은 어떻게 가능한가?”²⁾라고 하는 문제를 전 비판철학의 근본과제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세비판서³⁾를 차례로 저술했다. 그는 먼저 제1비판을 통하여 인식의 진위를 문제삼는 자연의 원리는 현상계에 타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2비판을 통하여는 선악의 문제를 따지는 도덕의 원리를 가상계에 타당하는 것으로 정초함으로써, 이들 두 비판의 연구결과는 결국 자연법칙이 타당하는 현상계와 도덕법이 타당하는 가상계가 각각 전혀 다른 별개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칸트는 이러한 자연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사이의 이원적 대립상태를 극복할 목적에서 제3비판을 통하여 “합목적성”(Zweckmäßigkeit)⁴⁾이라고 하는 a priori한 개념을 도입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칸트가 합목적성개념에 의해 자연계와 도덕계사이의 조화와 통일을 시도한 설명원리를 반성적 판단력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명해봄으로써 형이상학으로서의 칸트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방향을 모색코자 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제1비판에 있어서의 오성은 자연법칙을, 그리고 제2비판에 있어서의 이성능은 도덕법칙을 각각 입법하는 능력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면, 제3비판에 있어서의 반성적 판단력은 자연계와 도덕계가 각각 별도의 원리에 의해 성립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두 세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매개역할을 하는 능력임을 확인한다.

둘째, 제1비판에 있어서의 선형적 판단력은 ‘순수오성개념을 어떻게 대상

2) I. Kant,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Philos. Biblio. Bd. 40, Felix Meiner, Hamburg 1969, S. 133.

3) 본 논문에서는 칸트의 세주저인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 비판」을 각각 제1비판, 제2비판, 제3비판 이라는 표기와 혼용코자 함.

4) I.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Philos. Biblio. Bd. 39a, Felix Meiner, Hamburg, 1974, Einleitung, XXV III. (이하에서는 K. d. U. 로 표기함)

에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해명에 있어서, 그리고 제2비판에 있어서의 실천적 판단력은 ‘순수이성이 어떻게 하여 실천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해명에 있어서 각각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 칸트는 이들 두 판단력을 규정적 판단력이라고 하여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반성적 판단력의 성격과 구별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의 차이점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 예상된다.

셋째, 칸트의 목적론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합목적성개념을 검토해 봄으로써 이들 각각의 개념이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와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객관적 합목적성과 내적 합목적성에 대한 검토내용은 차후 본 논문에 있어서 유기체, 자연목적, 그리고 도덕적 목적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을 지닌다.

넷째, 유기체를 해명함에 있어서 규정적 판단력의 구성적 사용에 의하면 전통적인 기계론적 설명방식과 목적론적 설명방식이 상호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반성적 판단력의 통제적 원리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체는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만이 해명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다섯째, 칸트가 유기체를 해명하는 논리를 그대로 유기체를 포함한 전자연들에 확대적용하는 유추(Analogie)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추론적 오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봄으로써 자연목적은 반성적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에 의해서 비로소 해명될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한다.

여섯째, 칸트의 목적론적 견해는 결국 도덕적 목적론으로 귀결됨으로써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도덕적 목적으로서의 최고선(das höchste Gut)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이성의 요청’의 원리가 등장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원리는 곧 자연의 배후에 있는 신을 도덕적 존재의 최후 근거로 수용하고 있는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와 동일물이라는 사실등을 확인코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첫째, 칸트는 그 당시의 계몽주의 인물로써 자기 이전에 있었던 합리주의나

경험주의에 대한 종합을 통하여 새로운 입장의 인간이해를 꿈꾸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 오면서는 이러한 칸트의 입장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관념론이나 신칸트학파의 이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두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므로써 오히려 칸트철학 체계에 있어서 여러 용어들에 대한 의미의 전용과정등을 도외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서양철학의 경우 어느 한 사상가의 철학내용을 형이상학적이냐 인식론적이냐 아니면 가치론적입장 등이냐에 따라서 서술한 경우가 많이 있다. 칸트의 철학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칸트의 철학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로 제3비판서를 중심내용으로 삼아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칸트철학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밝혔다. 따라서 제1비판 및 제2비판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관점을 필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이점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자.

II. 제3비판서의 성격

칸트의 비판철학의 체계에 있어서는 인간이 사고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가장 넓은 의미의)이 기본적인 초석이 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三分되어 그들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오성(Verstand), 좁은 의미의 이성(Vernunft), 그리고 판단력(Urteilkraft) 등으로 분류된다.⁵⁾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성의 삼분법과 세비판서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제3비판서의 특징⁶⁾을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하자.

칸트는 제3비판의 제1서론 및 제2서론에서 철학의 영역을 이론철학과 실천

5) Ibid., Vorrede, III.

6) 여기서 말하는 제3비판서의 특징내지 성격은 「판단력 비판」의 제2부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 있어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어 지게 될 것이다.

철학의 분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인과성(Kausalität)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연계와 도덕계에 각각 적용해 봄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⁷⁾ 따라서 이론철학은 자연계를, 그리고 실천철학은 도덕계를 각각 논구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러므로 비판철학체제에 있어서의 자연계와 도덕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도덕생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각각 서로 다른 질서에 의하여 수립된 세계들이며, 전자의 영역은 감성적 성격을, 그리고 후자의 영역은 초감성적 성격을 지닌다.⁸⁾

칸트는 제1비판을 통해서 자연계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찾고자 노력한 결과 a priori한 원리에 의해 이성의 인식능력을 비판하여 그러한 인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는 동시에 보편타당한 인식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한편, 제2비판을 통해서서는 이성이 욕구능력에 관해서만 구성적(konstitutiv)인 a priori한 원리를 확보하여 최고선을 추구했다. 따라서 a priori한 이론적 인식을 위한 근거를 지니고 있는 자연개념이 오성의 입법위에 기초를 둔 것인 반면에, a priori한 실천적 준칙을 위한 근거를 지니고 있는 자유개념은 이성의 법칙위에 그 근거를 둔 것이었다.⁹⁾ 이렇게 보면 제1비판과 제2비판에 있어서는 각각 오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제3비판 역시 위의 두 비판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고유의 중심개념이나 단독적인 철학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즉, 우리는 현상계와 물자체, 자연개념과 자유개념, 그리고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라고 하는 철저한 이원적 입장의 칸트철학체제에 있어서 제3비판서가 담당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칸트에 의하면, 판단력은 자연개념이나 자유개념에 전적으로 속해있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두개념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들을 서로 결합해 주는

7) Ibid., Einl., X I - X III

8) Ibid.

9) Vgl., .bid., Vorrede, IV - V

기능을 떠 맡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¹⁰⁾ 그리고 특히 판단력중에서도 제3비판서의 중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성적 판단력은 합목적성 개념을 통하여 “자연개념에 의한 합법칙성에서 자유개념에 의한 궁극목적에로의 이행”¹¹⁾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제3비판은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을 종합·통일하여 하나의 더 근원적이고 일관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제3비판의 성격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때, 역시 칸트의 전비판철학의 체계가 이성, 오성, 그리고 판단력이라고 하는 삼분법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Ⅲ. 반성적 판단력의 내용¹²⁾

칸트의 비판철학체계에 있어서 판단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성 및 이성과 함께 상위의 고급한 인식능력이며 실질적으로 칸트철학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석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칸트에 있어서 특히 판단력은 그 자신 본래적인 기능으로서의 매개역할을 함에 있어서 일단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³⁾ 즉, 제1비판과 제2비판에 있어서의 규정적 판단력과 제3비판에 있어서의 반성적 판단력이 그것이다. 우선 제1비판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력은 오성의 개념이 순수하기 때문에 오성을 그대로 경험의 세계에 적용할 수는 없

10) Vgl., Ibid., Einl., X X V.

11) Ibid., Einl., LV.

12) 결국 칸트에 있어서의 판단력은 「순수이성 비판」에 있어서의 ‘선형적 판단력’과 「실천이성 비판」에 있어서의 ‘실천적 판단력’,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 있어서의 ‘반성적 판단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점에 있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조바람: 拙稿, “Kant 에 있어서 判斷力의 概念”, 「이데올로기 研究 論叢」, 第3輯(제주:濟州大學校 이데올로기 批判教育研究會, 1985), pp. 97-115.

13) Ibid., Einl., X X V.

는 형편이므로 그것을 대상세계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었고, 제2비판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력 역시 개개의 행위가 과연 실천이성의 근본법칙에 어떻게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판정하는 능력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1비판에 있어서의 “선형적 판단력”¹⁴⁾은 도식을 매개로 하여 전혀 이질적인 순수오성개념과 경험적 직관을 결합하는 능력이었고, 제2비판에 있어서의 “실천적 판단력”¹⁵⁾은 전형을 매개로 하여 실천법칙이 개별적 행위의 도덕성을 판정하는 능력이었다. 그러므로 칸트가 제1비판 및 제2비판에 있어서의 판단력을 규정적 판단력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들 두 판단력이 보편적인 것(인식론적 원칙이건 혹은 실천적 법칙이건)은 도식이나 전형을 매개로 하여 경험적 사실에 적용하는 능력인 점에 있다.

그러나 제3비판에 있어서의 반성적 판단력은 특수적인 것만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특수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어떤 보편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반성하는 능력인 점에 그 특징이 있다.¹⁶⁾ 다시 말하면, 칸트에 있어서의 반성적 판단력은 순수오성이 a priori하게 부여한 여타의 제법칙들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을 합목적성개념에 의해서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의 규정적 판단력이나 반성적 판단력이 그 본래적 기능으로서의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능력을 지닌 것이라고 하겠으나, 후자의 기능은 전자의 기능보다 더 포괄적 성격을 지닌 점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이와같은 판단력의 기능상의 차이점에 착안하여 제1비판 및 제2비판에서의 판

14)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Philos. Billio., Bd. 37a, Felix Meiner, Hamburg, 1956. S. B. 171, 175, 187. (이하에서는 K. d. r. V., 표기함)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선형적 판단력일반’ 혹은 ‘선형적 판단력의 이설’이라고 표현되어야 하겠으나 ‘실천적 판단력’과의 대조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함.

15) 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Philos. Biblio Bd. 38. Felix meiner, Hamburg, 1974. S. 79. (이하에서는 K. d. p. V.로 표기함)

16) K. d. U., Einl., XXVI - XXVII.

단력을 규정적 판단력이라 하고 제3비판에서의 판단력을 반성적 판단력이라고 하여 이들 두 판단력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했다.

칸트가 규정적 판단력에 있어서와 같이 반성적 판단력도 하나의 a priori한 원리를 필요로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의 a priori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반성적 판단력이 a priori한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칸트에 있어서의 a priori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성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며, 판단력이라고 하는 인식능력을 일반적으로 단지 a priori한 개념들의 객관적 대상 혹은 개별적 행위에만 관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성적 판단력은 어디까지나 a priori한 오성법칙에 의한 구성적 사용이 허락되는 개념이 아니라 “통제적”(regulativ)¹⁷⁾인 사용에 국한된 독특한 사유능력이라고 하겠다.

결국, 반성적 판단력은 정밀하고 고급한 인식능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특수를 통해서 보편을 주관적으로 판정하는 반성능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규정적 판단력과 구별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가 이러한 반성적 판단력을 내세운 이유는 규정적 판단력에 의해서는 그 해명이 불충분한 영역이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 점에 있다.¹⁸⁾ 그리하여 칸트는 여타의 a priori한 법칙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을 바로 이 반성적 판단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합목적성개념에 의해 “마치 어떤 하나의 오성(인간의 오성이 아닌)이 다양한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을 통일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 처럼”¹⁹⁾ 판정하려고 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칸트가 제시하는 여러 종류의 합목적성 개념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17) K. d. U., S. 250.

18) Ibid., Einl., XXV II.

19) Ibid., Einl., XXV III.

IV. 여러 종류의 합목적성

칸트는 오성에 있어서는 합법칙성(Gesetzmäßigkeit)의 개념을 사용하고, 그리고 반성적 판단력에 있어서는 합목적성(Zweckmäßigkeit)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각각 그들의 기반을 서로 다르게 정초했다. 그러나 합법칙성이나 합목적성이 적용되는 분야는 역시 다 같이 자연이라고 하는 동일한 영역임은 물론이다.²⁰⁾ 단지, 전자는 오성이 자연을 규정하는 입장이고, 후자는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서 자연을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²¹⁾ 따라서 합목적성개념은 규정적 판단력에 의해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목적이라고 하는 표상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요, 일단 그것이 지각되는 대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칸트 자신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²²⁾

칸트에 의하면, 자연현상 및 동식물의 생리현상조차도 자연법칙의 지배아래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이 합목적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성적 판단력의 판정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²³⁾ 말을 바꾸면, 우리가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서 자연법칙을 우리 삶의 목적에 부합되고 일치되는 것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들 자연현상이 합목적성을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의 형식들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

20) Ibid., Einl., XX.

21) Ibid., Einl., XXXIII - XXXIV.

22) Ibid., Einl., XXXIV.

23) Ibid., Einl., XXXV - XXXVII.

적 개념들을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과의 관계에서 보아 자연의 특수화의 법칙”²⁴⁾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된 범위의 특수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합목적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종합적 통일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범주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탐구에 있어서 길잡이가 될 만한 어떤 원칙들을 주관적으로 대상(자연)에 부여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칸트 자신이 “우연적인 것의 합법칙성”²⁵⁾을 합목적성개념의 대표적인 정의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우리는 칸트가 합목적성개념을 사용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 그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합목적성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 후, 특히 그의 목적론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원용되고 있는 객관적 합목적성개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칸트는 합목적성을 주관적 합목적성(die subjektive Zweck-mäßigkeit)과 객관적 합목적성(die objektive Zweckmäßigkeit)으로 분류했다.²⁶⁾ 그는 주관적 합목적성을 미적 합목적성으로 이해하여 이것은 순전히 주관적이며 형식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칸트는 주관적인 것도 미학적인 것도 아닌 또 다른 종류의 합목적성인 객관적 합목적성을 등장시켰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목적론적 판단력비판>에서 원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객관적 합목적성의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칸트는 그것을 다시 객관적-형식적 합목적성과 객관적-실질적 합목적성으로 분류했다.²⁷⁾ 전자에 속하는 것은 기하학적 도형이 지닌 것과 같은 수학적 합목적성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기하학

24) Ibid., Einl., XXXVI.

25) Ibid., S. 270.

26) Ibid., S. 221-223.

27) Ibid., S. 223-228.

적 도형들의 도움을 얻어서 수학적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그러한 모형에 합목적적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겠는 데, 그러나 이때의 합목적성은 우리의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도형들의 형식속에 놓여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객관적이라고 보는 것이 칸트의 견해이다.²⁸⁾ 따라서 기하학적 수학적 도형들이 지닌 합목적성은 객관성과 형식성을 동시에 지닌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수학적 합목적성과 같은 것은 객관적-형식적 합목적성개념의 좋은 실례가 되겠다.

다음으로 칸트는 수학적인 대상(기하학적 도형)과 구별되는 '자연적 현존재'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material)인 것이므로 이러한 현존재를 지닌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합목적성개념으로서의 객관적-실질적 합목적성개념을 등장시켰다. 그러나 이때에도 두가지 경우로 분류된다.²⁹⁾ 즉, 하나는 어떤 사물이 저 자신의 현존재이외에 전혀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합목적성개념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물이 저자신의 현존재를 통하여 다른 사물들에게 효용성(Nutzbarkeit)이나 유용성(Zutaglichkeit)을 주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합목적성개념이 그것이다. 칸트는 전자를 내적 합목적성(die innere Zweckmäßigkeit)으로, 그리고 후자는 외적 합목적성(die äußere Zweckmäßigkeit)으로 각각 명명했다. 그러나 칸트의 <목적론적 판단력비판>의 '분석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 종류의 합목적성중에서도 특히 내적 합목적성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칸트가 목적론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기체는 바로 이 내적 합목적성에 의해서 비로소 해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내적 합목적성개념에 의해서 유기체를 해명하는 칸트의 견해를 살펴 보기로 하자.

칸트는 내적 합목적성을 '현상들의 현존재가 자기자신 이외의 어떠한 다른

28) Ibid., S. 223.

29) Ibid., S. 229.

목적은 지니고 있지 않은 것³⁰⁾으로서의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를 유도한 후, 이러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본질이 동시에 원인이면서 결과인 사물이라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칸트는 “하나의 사물이 스스로 원인이자 결과일 경우에 그 사물은 자연목적으로서 현존한다³¹⁾”고 하는 가설을 설정한 후,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하여 유기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칸트는 먼저 유기체를 인간의 기술산물(Kunstprodukt)과 자연산물(Naturprodukt)로 분류한 후,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인간이 만든 ‘시계’를,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나무’와 ‘국가’라고 하는 유기체를 각각 그 실례로서 제시했다.³²⁾ 그러나 그가 내적 합목적성개념과의 연관아래 목적론적 교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기술산물이 아닌 자연산물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칸트자신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부터 추론된다. 즉, 기술산물과는 달리 자연산물은 “자기자신을 유기화하는 존재자로서 하나의 자연목적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산물³³⁾”이라고 말한 점과 “자연의 유기적 산물은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목적이면서 교호적으로 수단이기도 한 것³⁴⁾”이라고 말한 점이 그것이다. 우리는 칸트자신이 예시한 것 중의 하나인 ‘국가’라고 하는 자연산물로서의 유기체를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내세워 그것을 내적 합목적성과의 연관아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즉, ‘국가’에 있어서는 각 개인들은 단순히 국가의 부분들로서 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체의 ‘수단이면서 목적’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인과성이라는 개

30) 사실, 내적합목적성개념에 대한 칸트의 직접적인 정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분류하는 칸트자신의 「결과를 단지 다른 가능성적 자연존재자의 기술을 위한 재료로 간주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의 합목적성을 필자가 이렇게 해석함. (Vgl., K. d. U., S. 229.)

31) K. d. U., S. 233.

32) Ibid., S. 233.-238.

33) Ibid., S. 237.

34) Ibid., S. 239.

념에 비추어 보면 국가와 같은 유기조직적 자연산물에 있어서는 각부분은 다른 부분들의 '원인이면서 결과'라고 하는 설명체계로 환원시켜 볼 수 있다. 즉, 각 개인은 다른 개인과 공동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생기게 하는 원인(수단)이 되며 동시에 나머지 개인들을 위한 원인(수단)일 뿐만아니라, 각각의 개인은 단순히 모든 다른 개인에 의하여 현존하게 되는 목적물(결과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사물의 부분들이 교호적으로 생기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그 사물에 관하여 그 사물이 스스로 자신을 조직한다고 판단하게 되는 데, 물론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근거는 '객체의 근거에 마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처럼'³⁵⁾ 유기조직적 자연산물을 판정코자 하는 내적 합목적성개념에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칸트의 내적 합목적성개념에 의한 유기체 분석의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칸트의 목적론이 합목적성의 원리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할 때의 그 합목적성은 근본적으로 자연의 객관적-실질적 합목적성, 특히 그 중에서도 내적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목적론적 판단력비판>의 '분석론'에 있어서의 목적론적 고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일단 기술산물이 아닌 유기조직적 자연산물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내적 합목적성을 포함한 일체의 객관적 합목적성개념을 가능하게 할 뿐만아니라, 유기적 자연산물에 대한 목적론적 고찰을 가능하게 하는 최후의 근거는 제3비판서의 어디에도 흐르고 있는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에 있다는 문제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칸트가 내적 합목적성개념에 의해서 유기체를 해명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딪치는 문제는 어떤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기로 하자.

35) Vgl., Rüd., Einl., XXVI.

V. 유기체에 있어서의 합목적성

칸트는 우리의 오성에 의해서는 유기체를 전적으로 인식한다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단지 우리는 그것을 목적론적으로 판정하는 길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이 명백한 것임을 Newton과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유기조직적 자연산물을 단지 기계론적 원리에 의해서 검토하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단정했다.³⁶⁾ 그리하여 칸트는 전통적인 기계론적 원리나 목적론적 원리에 의해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자신의 목적론적 견해에 의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능력이 한계에 부딪치는 곳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목적론적 설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목적론은 기계론적 설명의 자리를 빼앗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³⁷⁾

그러면, 과연 이와같이 칸트가 내세우는 자기 특유의 목적론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목적론적 판정이 타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칸트는 실제로 서양철학의 전통속에는 기계론적 견해와 목적론적 견해가 병존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단, 이들 각각의 견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제화하여 표현했다.³⁸⁾

정립(S_1) : 물질적 사물들의 모든 산출은 단지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가능하다.

반정립(S_2) : 물질적 사물들의 약간의 산출은 단지 기계적 법칙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다.

36) Vgl., Ibid., S. 265.

37) Vgl., Ibid., S. 275.

38) Ibid., S. 251.

위의 두 명제중 S_1 은 전통적인 기계론적 견해를, 그리고 S_2 는 목적론적 견해를 각각 대표한다. 그리고 S_1 은 보편적 자연법칙을 주장하는 내용이고, S_2 는 S_1 의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 명제는 상호호순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들 둘 모두가 참일 수는 없고 한쪽 명제가 참이면 다른 명제는 거짓이어야 한다. 칸트 역시 이들 명제를 사물의 발생양식(창조양식)을 문제삼는 자연의 구성적 법칙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이들 명제는 여전히 상호호순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이성은 이 원칙들의 어느 하나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³⁹⁾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명제들을 판단력의 격률로 전화하여 통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들 명제 상호간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착상을 하기에 이르렀다.⁴⁰⁾ 그리하여 칸트는 전통적인 기계론과 목적론을 대표하는 명제, 즉 S_1 과 S_2 를 사물의 발생양식(창조양식)으로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설명양식으로 대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칸트의 뜻에 따라 명제 S_1 과 S_2 를 판단력의 격률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다.⁴¹⁾

첫째격률(M_1) : 물질적 사물들과 그 형식들과의 모든 산출은 단지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격률(M_2) : 물질적 자연의 약간의 산물들은 단지 기계적인 인과법칙들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수 없다(이러한 사물들의 판정은 전혀 다른 인과의 법칙 즉 목적론적 법칙을 필요로 한다)

위의 판단력의 두 격률(M_1 과 M_2)은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칸트는 이들 두 격률들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현실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병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격률 M_1 과 M_2 를 동일한 판단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거나 또는 사물 자신의 본성에 관한 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로 보면 이들 명제의 현실적인 병존가능성을 보장

39) Ibid.

40) Ibid., S. 250.

41) Ibid.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칸트는 우리의 이성이 자연(외적 감각의 대상들의 총괄)을 연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두종류의 법칙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들 각각의 명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물론, 이 경우 두종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성이 판단력에 대하여 a priori하게 시사해 주는 법칙 즉 규정적 판단력의 규칙과 특수한 경험들이 이성을 활동시켜서 하나의 특수한 원리에 따라 자연을 판정하는 법칙 즉 반성적 판단력의 규칙을 말한다. 칸트는 이러한 판단력의 이분법에 따라 격률 M_1 은 규정적 판단력에 의해서, 그리고 격률 M_2 는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서 각각 그들의 타당성이 주장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때 격률 M_1 과 M_2 는 다 같이 사물의 발생양식(창조양식)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양식을 표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⁴²⁾ 그 이유는 첫째, 본디 규정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특수한 것을 보편에다 포섭시키는 기능인 것인 데, 격률 M_2 의 경우는 이미 주어진 보편적 원리(기계론적 설명원리)에다가 자연일반에 있어서의 개개의 경험적 사실을 적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반성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전체적 원리를 판단력이 지닌 특수한 기능에 의해서 판정하는 능력인 것인 데, 바로 격률 M_2 의 경우가 기계론적 원리에 의해서 전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자연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주관적으로 반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격률 M_1 과 M_2 는 명제 S_1 과 S_2 와의 사이에 있어서와 같은 모순적인 것도 이율배반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상과 같은 칸트의 논리를 따르면, 격률 M_1 과 M_2 사이의 이율배반문제는 해소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다시 남는 문제는 칸트가 반성적 판단력의 격률로 이해한 격률 M_2 자체에 있어서 자연현상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방식과 목적론적 설명방식사이에 야기되는 충돌의 문제이다.⁴³⁾ 우리는 이 문제를 부각시켜 보기위해 격률 M_2 를 기계론적 설명부분과 목적론적 설명부분으로

42) Vgl., Ibid., S. 251-252.

43) Vgl., Ibid., S. 249.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⁴⁴⁾

격률 M_{2-1} : 물질적 사물들과 그 형식들과의 약간의 산출은 단지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격률 M_{2-2} : 물질적 자연의 약간의 산물들은 단지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판정되지 않는다.

위의 두 격률 M_{2-1} 과 M_{2-2} 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래의 반성적 판단력의 격률 M_2 역시 이율배반적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칸트 격률 M_2 자체가 드러내는 이러한 문제는 진정한 의미의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에 있어서 하나의 “불가피한 假象”⁴⁵⁾이라고 한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가 철저한 비판을 통하여 그러한 가상을 폭로하여 이성이 기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이와같이 주장하는 칸트의 진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칸트 자신이 <순수이성의 제3이율배반>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원용하여 이문제를 추론해 보기로 하자.⁴⁶⁾

칸트는 세계를 우리의 인식능력과는 독립한 하나의 완결된 전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이성이 빠지는 모순을 순수이성의 이율배반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율배반중 다음과 같은 두명제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는 <순수이성의 제3이율배반>이라고 일컫는다. 그 두명제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⁴⁷⁾

정립(T_1) :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원인성은……유일한 원인성은 아니다. 현상을 설명하자면 자유에 의한 원인성을 가정해야 한다.

반정립(T_2) : 자유란 없고 세계에서 모든 것은 오직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발생한다.

위의 두명제 T_1 과 T_2 에 있어서 T_1 명제는 자연의 원인성과 자유의 원인성을

44) 필자가 설명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류해 본 것임.

45) K.d.U., S. 249.

46) 이러한 방법은 이후의 VI, VII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원용된다.

47) K.d.r. I., S. 462.

둘다 인정하는 경우이고, T_2 명제는 자연의 원인성만 인정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칸트는 이들 명제의 적용영역을 각각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이들 명제사이의 모순성을 해결코자 했다. 즉, 제약자가 현상계에 있는 것으로 보면 T_2 명제가, 그리고 제약자가 물자체계에 있는 것으로 보면 T_1 명제가 각각 타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 명제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 T_1 명제를 현상계에, 그리고 T_2 명제를 물자체계에 적용하게 되면 이미 각각의 명제는 그들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⁴⁸⁾

이제 우리는 이러한 칸트의 논리를 토대로 하여 반성적 판단력의 격률 M_2 의 문제로 다시 되돌아 가보자. 우리는 위에서 편의상 격률 M_2 를 M_{2-1} 과 M_{2-2} 로 양분했다. 그중 M_{2-1} 명제의 내용은 사실상 격률 M_1 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른점은 M_{2-1} 의 경우가 이미 반성적 판단력에 의한 판정원리이라고 하는 점과 일부의 자연산물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방식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M_{2-2} 명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격률 M_2 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 격률이 적용되는 영역 또한 격률 M_2 와 서로 일치한다. 결국 M_{2-1} 명제는 기계론적 설명방식에 의해서 약간의 자연산물들이 해명가능하다는 주장이고, M_{2-2} 명제는 단지 목적론적 설명방식이 자연물중에서도 유기체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적용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을 바꾸면, 일반적인 자연산물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는 M_{2-1} 명제가 타당하고, 그리고 일부의 유기조직적인 자연산물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는 M_{2-2} 명제가 타당하다. 그러므로 격률 M_{2-1} 과 M_{2-2} 에 있어서의 상호 충돌되는 듯한 문제는 마치 칸트가 〈순수이성의 제3이율배반〉 문제를 해소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이들 각각의 명제가 적용되는 영역을 달리함으로써 해결된다. 따라서 반성적 판단력의 격률 M_2 에 있어서의 이율배반적인 듯한 문제해명을 위해 우리는 격률 M_{2-1} 과 M_{2-2} 를 적용하는 대상이 유기체나 아니냐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그리고 이때의 유기체란 특히 칸트가 예시한 ‘나무’나 ‘국가’와 같은 유기조직적 자연산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칸트에 있어서 이러한 유기체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역

48) Vgl., Ibid., S. 527-541 ff.

시 내적 합목적성개념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만약 유기체가 내적 합목적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론적 원리에 의해서 설명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기체일반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물자체의 불가인식을 대전제로 깔고 있는 전비판철학의 근본적인 견해와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칸트가 내적합목적성개념에 초점을 맞춘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에 의해서 유기체를 해명하는 과정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방식을 유기체를 포함한 전자현상에 확대적용하기를 시도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칸트의 시도를 좀 더 따라가 보기로 하자.

VI. 자연에 있어서의 합목적성

칸트는 전통적인 기존의 목적론적 설명체계들을 하나씩 검토한 후, 이들 견해가 주장하는 내용이 부당한 것임을 자신이 고안해 낸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개념에 조명하여 차례로 논박했다.⁴⁹⁾ 그 논박의 요지를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전통적인 목적론적 체계들은 인간의 오성에 근거를 둔 자연설명의 이론으로서 이러한 체계들은 하나같이 자연을 규정적 판단력에 의한 합법칙적 견해를 주장하는⁵⁰⁾ 것이므로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는 유기조직적 자연산물이 합목적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관한 칸트자신의 설명내용을 좀 더 풀어 본 다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그의 견해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칸트에 의하면, 오성의 인식능력은 규정적 판단력에 근거한다. 그리고 우리의 순수오성개념(범주)은 현상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곧 현상을 범주에 의하여 표상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일체의 대상은 인간오성에 있어서는 인식영역의 범위를 벗어난다. 인간의 오성은 물자체의 세

49) Vgl., K.d.U., S. 253-259 ff.

50) Vgl., ibid., S. 260.

계가 현상화된 부분을 기계적 원리에 의하여 파악한다. 따라서 인간의 추론적 오성이 일부의 자연현상을 기계적으로 해명하는 일이 어느정도 가능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유기체와 같은 자연산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오성은 그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⁵¹⁾ 만일 인간의 추론적 오성이 기계론적 설명방식에 의하여 유기체를 포함한 일체의 자연산물에 대한 해명을 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칸트가 그렇게 고심하여 고안해 낸 합목적성 개념이나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와 같은 것은 사실상 무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추론적 오성이 지닌 인식능력의 유한성에 있다. 더군다나 칸트의 고민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와같이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추론적 오성에 의해서 자연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규정적 판단력이 아닌 반성적 판단력에 토대를 둔 자기나름의 독특한 개념에 의해 인간오성이 지닌 추론적 인식방법을 유기체를 포함한 전자연물에 유추적용하는 길을 모색했다. 이것은 바로 인간적 입장에서 본 칸트의 목적론적 견해가 서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의 IV와 V에서 유기체에 국한된 칸트의 목적론적 견해를 살폈다. 이제 칸트는 이러한 원리를 유기체를 포함한 전자연현상에서의 확대적용을 시도한다. 이경우 우리의 오성이 부딪치는 기계론적 원리와 목적론적 원리를 칸트는 어떻게 해명하는 하는 것일까?

칸트에 의하면, '목적'이라는 용어는 그것이 대상에 적용되는 경우와 개념 자체에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우선 대상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 대상이 그의 형식에 있어서 목적이 되는 때이다. 예컨대, 집의 경우에 있어서 집은 그 집이라는 대상의 미리 표상된 개념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각 부분들과의 특수한 연관관계라는 형식에서 볼 때 그것은 목적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원인의 규정근거가 단지 그 원인에서 나오는 결과의 표상에 지나지 않을 때 그러한 원인의 산물"⁵²⁾이라고

51) Vgl., Ibid., S. 276.

52) Ibid., S. 274.

규정했다. 다음으로 개념자체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대상의 형식이 선행하는 개념으로서의 목적에 의해 규정되는 때이다. 이때의 목적의 의미를 칸트는 “객관의 현실성을 포함하는 한에 있어서의 한 객체의 개념”⁵³⁾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러므로 본래 칸트에 있어서의 ‘목적’이라는 용어는 개념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만 적용되는 것일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활동의 규정근거로서의 미리표상된 개념이 실현된 것이라고 보면 이때에는 그 대상이 목적이 되겠고, 그리고 어떤 개념의 표상이 그 개념에 적합한 대상을 현실자체내에 산출할 것을 이유로 하여 그 대상에 의해 목적이 실현된 것이라고 보면 그 때에는 그 개념이 목적이 되겠다. 이와같이 칸트는 개념과 개별적 대상사이의 상호관계성을 고려하여 목적관념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추론적 오성이 부분에 선행하는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바로 이 칸트의 목적관념이 지니고 있는 관계관념적인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극히 한정된 인간오성의 능력에 의해서 전자연을 해명해 보겠다고 하는 칸트의 시도가 곧 이 목적관념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체를 오성의 구성적 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단지 우연적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나 한편, 우리가 이성활동에 있어서 정립되는 목적관념을 이 유기체속에 移入하여 보면 이 유기체는 흡사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이성적 존재인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⁵⁴⁾ 그러나 만약 자연전체를 한순간에 통찰할 수 있는 직관적 오성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면, 각별히 유기체에 목적개념을 移入하여 본다든지 혹은 기계론적 설명이나 목적론적 설명으로 각각 분리하여 자연해명을 시도하는 것등은 별로 의미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직관적 오성에

53) Ibid., Einl., X XⅦ.

54) 이것이 바로 칸트가 인간적입장에서 자연을 고찰하는 방법이며, 전비판철학이 그 바닥에 깔고 있는 자연해명의 기본적인 방법적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있어서는 개념적 인식과 직관적 인식이 동시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 인간이 자연의 외면적 전체와 내포적 전체를 동시에 스스로의 체계적 통일에 포섭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인간오성의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일일 것이다. 사실 칸트 역시 일단, 우리의 추론적 오성은 미적대상은 물론이요 유기체라고 하는 특수한 자연산물을 포함한 전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⁵⁵⁾ 이러한 한계상황에 부딪친 칸트가 우리의 추론적 오성이 목적관념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으로서 내세운 것이 바로 “초감성적 기체”⁵⁶⁾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하나의 가설적 이념이다. 그러나 이때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성에서와 같은 객관적이고 구성적인 실체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행위하는 예지적 세계원인으로서의 창조자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 처럼 칸트는 제3비판에 있어서도 제2비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계의 예지적 창조자를 전제함으로써 자연체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기계론적 원리와 목적론적 원리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즉, 칸트는 예지적 근거라고 하는 이념에 의해 인과원리와 목적원리가 모순없이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결국 직관적 오성대신에 “실천이성”⁵⁷⁾을 도입함으로써 그것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목적개념을 자연속에 투입한 후, 객관속에 자신의 목적을 살리는 동시에 객관자체를 완전하게 해명하려는 방식을 택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칸트의 설명방법을 그가 내세운 합목적성개념과의 연관아래 좀 더 추론해 보기로 하자.

칸트에 의하면, 합목적성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유기적 조직체로 보는 기본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⁵⁸⁾ 그러므로 이것은 인과필

55) K. d. U. S. 273.

56) Ibid., S. 276.

57) Ibid., Vorrede. VII.

58) Vgl., 본문 각주(21)(23), 이것은 곧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서 비로소 유기체가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적인 역학체계로서의 자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성발전하는 유기적 자연산물을 이해하기 위한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에 조명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기체는 이미 인과결합의 논리에 의해서는 전적으로 해명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목적결합의 논리에 의해서만 판정될 수 있는 자연산물이기 때문이다.⁵⁹⁾ 이와같은 유기체의 합목적성 특히, 내적 합목적성개념과의 연관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유기체가 자연목적물로서 존재하는 근거를 이른바 칸트가 말하는 ‘예지적 세계창조자’라고 하는 이념을 통하여 이해하게 된다.⁶⁰⁾ 그 이유는 우리의 반성적 판단력의 판정에 의해서만이 유기적 존재자의 조직된 전체를 산출하는 조직원리인 하나의 이념이 그 유기체의 바탕에 이미 놓여있다고 주장하는 칸트의 의도가 짐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목적들의 근거에 목적표상으로서 설정한 이선행하는 이념안에서 하나의 조직된 그리고 스스로 조직하는 전자연의 체계를 위한 모든 부분들의 공동작용의 가능근거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전자연 체계안에서의 이러한 부분과 전체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의 맹목적인 기구를 넘어서 하나의 초감성적인 규정과 관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한다. 이러한 초감성적 이념과의 연관아래에 있는 자연목적으로서의 전자연산물에 대한 설명원리가 바로 칸트가 말하는 반성적 판단력에 대한 “초감성적 원리”⁶¹⁾이며, 이 원리는 곧 전자연체계에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해소를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칸트의 목적론에 있어서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목적론을 다시 한번 이러한 합목적성의 개념에 의해 조명해 보기로 하자.

59) K. d. U., S. 235.

60) Ibid., S. 322.

61) Ibid., S. 244.

VII. 도덕적 목적론에 있어서의 합목적성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인간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이러한 일련의 물음에 대한 칸트의 견해는 어떤 것일까?

먼저 칸트는 어떤 사물이 중간항으로서의 목적물이 아니라 그 자체 최후의 자연목적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자연산물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⁶²⁾ 그는 이 문제를 추론함에 있어서 외적 합목적성(die äußere Zweckmäßigkeit)의 개념을 분석의 도구로 삼아 접근한 후, 다시 그것을 내적 합목적성과의 대비를 통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칸트는 외적 합목적성의 의미를 “자연의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에 대하여 목적에 대한 수단이 되는 경우의 합목적성”⁶³⁾이라고 규정하여 자연체계의 연쇄망을 수단과 목적관계로 이해함으로써 자연산물들의 연쇄계열의 형태를 두가지로 분류했다.⁶⁴⁾ 하나의 계열은 인간을 최후 목적적 존재로 보는 입장이고, 또 하나의 계열은 인간을 최후 수단적 존재로 보는 입장이다.⁶⁵⁾ 예컨대 우리는 식물은 초식동물을 위해서,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위해서, 그리고 육식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시 이 체계를 역의 순서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편의상 전자를 계열(1)이라고 하고 후자를 계열(2)라고 부르기로 한다. 결국 자연체계에 대한 외적 합목적성개념에 따른 판정결과는 계열(1)에 의하면 인간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고, 계열(2)에 의하면 인간을 최종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율배반의 문제가 야기된다.⁶⁶⁾ 그러면 칸트는

62) Ibid., S. 289.

63) Ibid., S. 293.

64) Ibid., S. 294-295 ff.

65) Ibid.

66) Ibid., S. 297.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앞의 VI에서 칸트가 유기체의 해명에 있어서 등장하는 이율배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성적 판단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적 합목적성개념과, 그리고 그러한 개념에 의해 유기체를 포함한 전자연설명을 위해서 '초감성적 기체'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적 이념을 도입한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⁶⁷⁾ 물론, 칸트가 여기에서 내적 합목적성 개념을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 때문이었다. 첫째는 인식능력상에 있어서 인간의 오성이 직관적(신적) 오성과는 다른 능력을 지녔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인간의 오성으로서는 자연산물을 '자연목적'으로 해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전자연설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오성에 의해 자연목적으로 해명하려는 시점에서 칸트는 다시 내적으로 합목적적인 존재의 자연목적의 개념이 정초될 수 있는 가설적 이념을 설정한 것이였다. 그 이념이란 곧 "필연적으로 제목적의 규칙에 따르는 한 체계로서의 전체자연의 이념, 즉 자연의 전기구가 이성의 원리에 따라 종속되어야 하는 그 이념"⁶⁸⁾을 의미한다. 따라서 칸트의 목적론에 있어서 상정된 바로 이러한 가설적 이념에 의해 비로소 유기적 존재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성립하는 일체의 사물들 조차도 세계전체 안에서의 목적의 한 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된다. 그 이유는 초감성적 원리의 통일은 자연존재중의 특수한 종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체계로서의 자연전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타당하게"⁶⁹⁾고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칸트는 이러한 기본적인 가설을 수용함으로써 인간오성에 의해 유기체를 자연목적으로 설명하는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였다. 이와같은 칸트의 논리는 우리가 위에서 제시한 계열(1)과 (2)사이에 드러나는 이율배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의 외적 합목적성개념에 의해서는 자연산물이 수단적일 수도 목적적일

67) Vgl. 본 논문 S. 29이하 참조.

68) K. d. U. , S. 242.

69) Ibid. , S. 244.

수도 있다고 하는 이중적 해석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자연체계의 설명 계열 (1)과 (2) 사이에 이율배반이 야기될 수 있겠으나, 이제 반성적 판단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적 합목적성개념에 의해서는 전자연물을 목적론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 부분이 바로 칸트가 외적 합목적성과 내적 합목적성과의 조화·통일을 도모한 대목이 되겠고, 기계론적 원리에 포함되는 일체의 자연산물들이 목적론적 설명원리로 흡수됨과 동시에 유기체에 있어서의 종족번식의 조화 역시 오히려 기계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⁷⁰⁾ 이렇게 자연을 해명코자 하는 칸트의 논리전개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자연에 있어서의 모든 유기체들은 다른 자연산물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특히 인간만은 그러한 유기체들의 단순한 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에 있어서의 창조의 최후목적임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칸트는 “사람은 목적을 이해할 수 있고 합목적적으로 형성된 사물들의 집합을 자기의 이성에 의하여 목적자체로 만들 수 있는 지상 유일의 존재”⁷¹⁾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제 사물이 그 존재의 위에서 의존적 존재자로서 목적에 따라 작용하는 최고인을 필요로 한다면, 인간만이 조화의 궁극목적이 된다”⁷²⁾라고 하여 결국 인간을 최후의 자연목적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칸트의 말대로 인간은 자연과 자기자신사이에 목적관계를 부여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할 의지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전제아래에서 자연의 최후 목적적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칸트는 그러한 목적을 인간자신 속에서 찾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⁷³⁾ 즉 그것은, ① 자연의 목적

70) Vgl., S. 297-298.

71) Ibid., S. 295.

72) Ibid., S. 305.

73) Vgl., S. 298.

이 자연자신을 통해서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거나 혹은 ② 자연의 목적이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려는 각종 목적에 대해 인간에게 유용성과 숙련성을 제공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자연의 목적이 ①의 경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을 인간의 행복이라고 했고, ②의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을 인간의 문화라고 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의 행복이 과연 자연의 최후목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칸트에 의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이 자기의 본능으로 부터 추상해 내어 자기 자신속에 있는 동물성에서 도출해 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현실적 상태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입안한 하나의 이념에 다가 자기의 경험적인 제약을 합치시켜 보려는 욕망에서 나온 가설물이라고 한다.⁷⁴⁾ 그러므로 인간이 어디까지나 행복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이 이념은 인간에 의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칸트의 견해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소유와 향락에 있어서는 어디선가 멈추어서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있다. 이점에 대한 칸트 자신의 직접적인 부연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자연이 인간을 그의 특별한 총아로 선택하여 그에게 더 자애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부의 자연이 아무리 자비롭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연의 목적이 우리 인류의 행복을 향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부의 자연적 본성이 이러한 자비로운 자연을 받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의 목적은 지구상의 자연의 체계안에서는 도저히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⁷⁵⁾라고 한 부분이 그것이다. 결국 칸트는 인간이 지닌 자연적 본성상 행복이 곧 인간의 최후목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이었다. 이와같은 칸트의 주장이 옳다면, 실로 우리가 자연목적을 인간의 행복에서 찾는 일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여기에 도달한 칸트는 다시 인간존재의 궁극목적은 행복과 같은 실질적 내용을 지닌 것이 아닌, 문화라고 하는 형식적인 목표에서 찾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

74) Ibid.

75) Ibid., S. 299.

면, 그가 인간에 대해서 목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이러한 형식적 조건으로서의 문화개념에 의해 자연을 인간의 문화목적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

칸트는 문화의 개념을 “임의의 목적일반에 대한 이성적 존재자의 (따라서 그의 자유에 있어서) 유능성을 산출하는 것”⁷⁶⁾이라고 규정한 다음, 유능성(Tauglichkeit)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자기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또(자기의 목적규정에 있어서는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을 자기의 자유로운 목적일반의 격률에 알맞도록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⁷⁷⁾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목적일반에 따라 자연을 이용하는 이러한 능력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주관적 조건을 인간의 숙련성(Geschicklichkeit)이라고 하여 그것을 “인간사이의 불평등을 전제로 해서 비로소 발달할 수 있는 능력”⁷⁸⁾으로 이해했다. 다시 칸트는 이러한 숙련성을 제발하게 하는 인간의 특성을 “비사교적 사교성”⁷⁹⁾이라고 했다. 물론 칸트가 주장하는 이러한 인간의 양면적 성격은 인간이 극히 사회화하고자 하는 성향과 극히 개인화하고자 하는 성향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 비사교적 사교성이 인간의 모든 자연적 소질을 점차적으로 계발시킴으로써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칸트의 기본적인 견해이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칸트의 견해는 인간의 자연적 소질이 최대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실질적인 체제 즉 시민사회의 형성과 같은 것을 전제로한 것이었다.⁸⁰⁾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시민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가제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자연의 의도’가 실현되기 위한 최소한의 예

76) Ibid., S. 300.

77) Ibid.

78) Ibid., S. 301.

79) I. Kant, *Geschichtsphilosophie, Ethik und Politik*, Hrsg. Von K. Vorländer, Hamburg, 1959, S.9.

80) Vgl., K.d.U., S. 301.

비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제도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러 시민사회사이에 발생하는 알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를 넘어선 더 큰 구속력이 또 다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시민국가간의 알력 해소문제로 말미암아 '영구평화'의 이념에 기초한 세계국가의 실현이 불가피한 사실로 요청될 수 밖에 없는 상황같은 것도 칸트에 있어서는 일종의 숨어있는 '자연의 의도'로 이해될 수 있겠다.⁸¹⁾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결국 전쟁과 같은 '무의도적 기도' 또한 문화에 봉사할 수 있는 인간의 숙련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촉진제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칸트의 주장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지닌 자연적 소질로서의 숙련성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 그것이 곧 문화요 바로 이 문화가 자연의 최후목적임을 밝혀 봄으로써 인간존재의 가치는 자연의 의도에 따라서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는 것이지 그저 향락하는 분량에 비례하여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러나 칸트는 문화가 최후의 자연목적일 수는 있으나 아직도 그것이 전자연의 절대목적(궁극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칸트가 인간의 문화 창조활동을 인간존재가치의 제일의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다시 자연의 궁극목적이라고 하는 더 상위개념을 내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선 칸트에 있어서 '자연목적'이라는 개념은 기계적 조직의 원리에 따라 존재하게된 자연산물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적 이념에 토대를 둔 요청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물이 단순한 존재 목적만을 지닌 것이 아니면서 그리고 일체의 수단적 존재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자체로서의 목적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목적개념이 칸트에 있어서 '자연의 최후목적'이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칸트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존재와 관련하여 '자연의 궁극목적'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칸트는 궁극목적(Endzweck)을 "자신의 가능성 조건으로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⁸²⁾이라고 하여 이러한

81) Vgl., Ibid.

82) Ibid., S. 303.

무조건적 목적개념에 부합하는 존재는 도덕적 인간 뿐이라고 한다. 물론 이때의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가상체로 고찰된 인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의지 자유의 능력을 지닌 최고선(das höchste Gut)의 실현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적 존재자로서만이 인간은 창조의 궁극목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칸트의 기본적인 견해이다. 이와같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⁸³⁾을 자연의 궁극목적물로 본다면 우리는 다시 이러한 인간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실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칸트는 도덕법칙에 맞추어 궁극 목적을 도출해 내기·위해서는 도덕적 세계원인을 상정하는 일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었고, 이것은 마치 그가 제2비판에 있어서 최고선이나 도덕법칙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왕국의 우두머리로서의 신을 등장시킨 사정과 꼭 마찬가지로 형편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칸트에 있어서의 궁극목적이라는 개념은 자연을 이론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경험의 소여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요, 자연의 인식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도덕법칙에 따르는 실천이성에 대해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천이성의 소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⁸⁴⁾ 이러한 사실은 곧 칸트에 있어서 궁극목적 또는 도덕적 목적등에 관한 일련의 논의들은 어디까지나 ‘실천이성의 요청’의 원리 혹은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에 의하여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⁵⁾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의 일체의 논의들을 규정적 판단력에 조명해 보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러한 논의들에 대한 반대명제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가 외적 합목적성개념에 의한 자연산물의 연쇄계열(2)의 분석에 있어서는 인간은 신의 궁극목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기계적 인과의 원리에 종속하고 있는 수단적 존재중의 하나로 볼 수 있었던 것 처럼. 결국 칸트는 우리에게 실천이성의 요청에 의해서 설정한 도덕적 세계의 근원적 존재자를 내세워 도덕적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목적으로

83) Ibid., S. 305.

84) Vgl., Ibid., S. 317.

85) Vgl., Ibid., S. 297-298.

실현코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와같이 칸트가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서 내세운 도덕적 목적론에 있어서 모든 도덕법칙의 최고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가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실현코자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칸트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잠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다. 즉, 그것은 첫째, 인격이 목적으로 대우받는 목적왕국에 있어서의 보편적 도덕률(무상명령)이 바로 최고의 도덕법칙이요, 둘째 그러한 도덕법칙에 따라 최고선(das höchste Gut)을 실현하는 것을 윤리적 이상으로 생각한 대목이다. 이제 우리는 본 논문의 의도와 관련하여 두번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칸트의 견해를 검토해 보자.

칸트에 의하면, 최고선이란 ① 의지가 도덕률에 일치하여, ② 그 결과로서 행복을 획득한 상태를 의미한다.⁸⁶⁾ 따라서 칸트에 있어서의 윤리적 이상은 덕과 福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덕과 복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 데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거나 일치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칸트는 전통적인 덕복일치를 주장하는 Epikuros 학파와 Stoa 학파의 이론들을 대표적인 것으로 내세워 그것들을 비판함으로써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논증하려는 방법을 도입한다. 우선 이들 각 학파의 주장내용을 명제화시킨 칸트의 직접적인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다.⁸⁷⁾

E명제(Epikuros학파의 주장): 행복에 이르는 자기의 격률을 의식하는 것이 덕이다.

S명제(Stoa학파의 주장): 자기의 덕을 의식하는 것이 행복이다.

위의 E명제나 S명제는 덕과 복의 관계를 분석판단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덕속에 이미 행복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거나 혹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분석하기만 하면 필연적으로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를 았다. 그래서 칸트는 덕과 복의 인과적 결합관계를

86) K. d. p. V., S. 128.

87) Ibid., S. 129.

고려하여 다음(K_1 명제 및 K_2 명제)과 같은 종합판단의 형식으로 변형시켜 본다.⁸⁸⁾

K_1 명제; 행복을 구하는 노력이 유덕한 심정의 근거를 가져온다(행복의 추구가 곧 덕이다)

K_2 명제; 유덕한 심정은 행복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덕은 자연적으로 행복을 가져온다)

위의 두명제 중 K_1 명제는 행복을 구하는 노력이 덕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의지의 규정근거를 자기행복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행위규칙은 칸트에 있어서는 개인적 격률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실천이성(선의지에서 연유한)에 의한 도덕률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명제 K_1 은 아예 도덕성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부터 제외된다. 그러면, K_2 명제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는 편의상 K_2 명제가 담고 있는 내용을 다음(K_2-1 명제 및 K_2-2 명제)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⁸⁹⁾

K_2-1 ; 유덕한 심정이 행복을 가져온다.

K_2-2 ; 유덕한 심정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위의 명제들은 상호모순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착과 욕구에 얽매여 있는 실천이성이 최고선을 요구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져 이율배반을 일으킨 것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칸트가 순수의지의 규정근거로서의 도덕률이라는 형식과 의욕의 대상 즉 행복이라고 하는 질료사이에 성립하는 이율배반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먼저 칸트는 인간이란 현상계에 속해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도덕계에 속해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존재의 이중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⁹⁰⁾ 즉 인간을 형상계에 속하는 유한적 존재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K_2-2 명제가 타당성을 지니게 되어 오히려 K_2 명제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한갓된 감성적 존재에 그치는

88) Ibid., S. 132.

89) 필자가 임의로 분류해 본 것임.

90) K. d. p. V., S. 132.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덕률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는 예지계에 속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이 최고선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인간이 지닌 현상적 성격 보다는 인간의 가상적 성격에서 포착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 다시 칸트는 최고선의 실현을 위한 위의 ①과 ②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혼불멸과 神存在를 요청했다.⁹¹⁾ 말을 바꾸면, 칸트는 최고선의 명제 K_2 가 지닌 이율배반의 문제를 영혼불멸과 신존재의 요청을 토대로 하여 인간존재의 이중적 성격중 가상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해소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칸트는 K_2 -2명제가 타당한 것을 인간의 현상적 성격에서 찾은 반면에, K_2 -1명제가 타당하는 것을 인간의 가상적 성격에서 찾은 결과 이들 명제간의 모순을 해결했다. 이것은 마치 제1비판의 '변증론'에서 성립한 <순수이성의 제3이율배반>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과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위에서 칸트의 도덕적 목적으로서의 최고선을 추론함에 있어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면서도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바로 실천이성의 요청적 사실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영혼불멸이나 신존재와 같은 이념들은 실천이성을 매개로 한 이성적 신앙의 대상이며 이른바 칸트가 말하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도덕적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칸트는 이러한 도덕적 신앙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최고선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관적요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칸트는 결코 神에 의하여 도덕을 정초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도덕에서 출발하여 영혼불멸, 신존재등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칸트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유한자로서의 인간적 입장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의 굳은 신념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칸트의 신념은 도덕법을 기초로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지닐 수 있는 절대 필연적인 도덕적 신앙을 의미한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 신앙이란 "이론적 인식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참

91) Vgl., S. 140-151 ff.

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성립하는 도덕적 태도”⁹²⁾라고 한다. 따라서 도덕적 신앙은 이론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성에 의한 도덕적 법칙이 요구하는 약속에 대한 신뢰이다. 이 때의 ‘약속’이란 도덕법칙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성이 그 법칙속에 투입한 구체적 내용물을 가리킨다.⁹³⁾ 도덕적 신앙을 이해하는 칸트의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비판철학이 대전제로 깔고 있는 구상이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⁹⁴⁾ 따라서 칸트철학체계에 있어서 이러한 구상이론이 「실천이성비판」에 있어서는 ‘실천이성의 요청의 원리’로 등장한 것이었고 이것이 좀더 적극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판단력비판」에 있어서의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칸트가 실천이성의 요청의 원리를 내세운 직접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그에 의하면, 이론이성이 파악한 진리는 상대적인 현상계에 국한된 유한적인 것이었고, 실천이성이 최고선을 추구한 결과 상징한 세계는 예지적 진리의 세계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중진리성의 모순에 부딪친 칸트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를 찾은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진리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칸트는 제3비판서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를 내세웠다. 즉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서 ‘자연의 기교’ 배후에 가장 높은 지적 세계원인(신)을 상징하여 그것을 도덕적 존재의 최후근거로 삼았으며, 이러한 근원적 존재자에 의하여 자연의 모든 세계가 합목적적으로 조화되어 있음을 판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결국 칸트철학체계에 있어서 실천이성의 요청의 원리와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는 동일물의 양면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92) K. d. p. V., S. 346.

93) Ibid.

94) Kant의 비판철학에 흐르고 있는 「구상이론」이 K. d. U.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바로 道德的目的論이 귀결되는 ‘도덕적신앙’의 태도에서 발견된다.

VIII. 맺는 말

당초에 본 논문의 의도는 칸트에 있어서 자연계의 지배원리와 도덕계의 지배원리가 모순없이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연과 자유의 조화문제는 자연과학적 사실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어도 칸트에 있어서는 유추나 투입의 형식으로 밖에는 달리 표현될 수 없었고, 그것은 곧 자연이 마치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찰된 내용이었다. 따라서 자연적 대상들을 합목적성의 관점아래 고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칸트에 있어서 반성적 판단력이 지닌 a priori한 성격이었다. 말을 바꾸면,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서 자연과 자유와의 사이에 놓여있는 건널 수 없는 계곡에 다리를 놓기 위하여 즉, 오성의 합법칙성과 이성의 최고목적의 원리 사이의 조화를 발견하기 위하여 합목적성의 철학을 도입했다. 결국 칸트에 있어서의 합목적성은 반성적 판단력의 고유한 개념이며 이점에 있어서, 목적은 객체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반성하는 주관을 고려할 때, 자연은 합목적적하다고 표현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식론적인 입장인 규정적 판단력에서 보면 이러한 목적원리는 부정되며, 따라서 일체의 자연은 기계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기계론적 원리에 의하여 전자연 현상이 명쾌하게 해명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칸트자신의 고민이 해결되지 못했던 점에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목적개념의 사용에 의해서 특수한 개별적이고 경험적 개념들이 어떤 종류의 진리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체없이 그러한 탐구에도 관심을 돌려야만 한다고 생각한 데서 바로 칸트의 목적론이 전개된 것이었다.

칸트의 합목적성의 원리는 한마디로 자연을 유기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서 있다. 물론, 유기체는 오성의 구성적 원리에서 보면 우연적인 것에 불과한 것

이지만, 우리가 일단 여기에 목적개념을 이입하여 보면 유기체는 흡사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이성적 존재인 것 처럼 보인다. 유기체가 자연목적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칸트는 자연계에 있는 개물들은 하나같이 그러한 합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 그러한 원리를 전우주에 까지 확대하여 마치 자연의 합법칙성이 최고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논리는 적어도 비판철학의 형이상학적 체계안에서는 이율배반문제의 제기과 그 해소방법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들 각각에 있어서 이율배반의 해소를 위한 칸트의 착상은 자유법칙과 인과법칙의 승인, 목적론과 기계론의 조화, 그리고 신의 요청등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해소방법들은 자연의 궁극목적 탐구하는 도덕적 목적론에서 등장하는 이율배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곳으로 수렴된 것이었다.

칸트에 의하면, 자연적 목적론에 있어서는 인간이 자연의 최종목적이라고 한다. 즉, 자연목적으로서의 인간은 주관적으로는 행복을,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문화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도덕적 목적론에 있어서는 도덕적 법칙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즉 도덕적 법칙 밑에서 있는 인간만이 창조의 궁극목적이 된다. 따라서 목적왕국의 실현은 도덕적 존재인 인간이 도덕적 목적으로서의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성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칸트는 자연법칙을 도덕률의 전형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자연의 세계는 자유의 세계의 상징이요, 목적왕국은 결국 자연왕국의 유추에 의해서만 비로소 인식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천이성이 자각한 궁극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연과 자유의 유기적 연관구조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것은 마치 합목적성의 원리를 반성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드디어는 이 합목적성의 개념으로부터 최고의 예지적 존재자를 상징하여 그것을 도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근거로 수용하는 반성적 판단력의 판정태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칸트가 유기적 자연산물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해낸 합목적성의 원리는 비판철학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목적론에 이르러 실천이성의 요청의 원리로 드러났다. 따라서 칸트의 윤리적 이상을 정당화시켜 주는

마지막 단서는 역시 합목적성개념이 가능할 수 있는 반성적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1. 金容民, "Kant의 目的論", 「建大學術誌」第二十七輯, 建大出版部, 1983.
2. 박선목, 「칸트와 형이상학」, 학문사, 1983.
3. 朴鍾鴻, 「認識論理」, 博英社, 1981.
4. 鄭 鎭, "Kant의 合目的性的 原理에 關하여", 「論文集」, 서울대출판부, 1973.
5. ———, "Kant의 '純粹理性批判'의 存在論的 解釋", 서울대 大學院, 1979.
6. 崔載喜, 「칸트의 純粹理性批判研究」, 博英社, 1981.
7. 崔逸雲, 「批判哲學의 批判」, 雲雪出版社, 1981.
8. 칸트者, 「判斷力批判」, 李錫潤譯, 博英社, 1980.

9. Kant, I., *Kritik der Urteilskraft*, Philos. Biblio., Bd. 39a, Vorländer, Felix Meiner, Hamburg, 1974.
10. ———, *Erste Einleitung in die Kritik der Urteilskraft nach der Handschrift*, Philos. Biblio., Bd. 39b, Gehard Lehmann, 2. Aufl., Hamburg, 1970.
11.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Philos. Biblio., Bd. 38, Vorländer, Felix Meiner, Hamburg, 1974.
12. ———, *Kritik der reinen Vernunft*, Philos. Biblio., Bd. 37a, Schmidt, Felix Meiner, Hamburg, 1956.
13. ———, *Geschichtsphilosophie, Ethik und Politik*, Hrsg. Von K. Vorländer, Hamburg, 1959.
14. ———,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antschriften Bd. IV, Riga, 2. Aufl, 1786.
15. ———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Philos. Biblio., Bd. 40, Vorländer, Felix Meiner, Hamburg, 1969.
16. *Kant-Studien*, 75 Jahrgang, H-4, 1984.
17. Eiseler, R., *Kant-Lexikon*, OLMS PAPEBACKS, Bd. 2, New York, 1977.